

친환경건축의 미래로의 초대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focus

미래 산업의 역동성을 추구하고 산업의 다각화 속에서 건축의 폭넓은 이해와 전시 참가자들의 매출증대 및 새로운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친환경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0일(수)부터 10월 24일(일)까지 5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현재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CO₂의 증가, 고에너지사용, 자원의 고갈 등이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부도위기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 또 앞으로 50년 후면 빙하의 해빙으로 인해 해수면이 30cm 이상 상승하여 많은 지역과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 더 큰 재난 앞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특히 우리 건축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친환경'은 나와 우리, 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키워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친환경건축의 미래'이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CO₂ Zero, Energy Zero, Waste Zero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건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최상의 비즈니스와 풍성한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는 전시회와 아울러 다양한 동시행사가 개최된다. 전국 1만여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정보 교류 및 친목을 다지는 '전국건축사대회'와 대한민국 최대의 건축상제도로서 시상 및 전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건축관련 신기술 보급과 확산을 위한 '건축사 연수교육' 및 '친환경건축 심포지엄'이 개최되며,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을 비롯한 '건축사 미술전'과 '사진전', '건축사 신인전' 등 다채로운 관련 행사가 모두 통합되어 진행된다.

이외에도 국제건축사연맹(UIA)을 비롯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태국 등에서 활동하는 각국 건축단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교역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과 행사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경기 하강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참가업체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건축관련 분야의 모든 당사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핑계로 두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러한 큰 행사를 협회의 전시사업위원회 위원들만의 노력으로 성공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건축사들의 단합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사와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가 되어야 한다.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가업체들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전시회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 사업위원회는 얼마남지 않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여 전국의 건축사 및 가족, 건축 관계자 및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이다.

우리의 '2010한국건축산업대전'이 일부의 잔치가 아닌 우리가 주인인 건축계 전체의 행사이며 축제가기를 기원하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전시회의 성공으로 우리의 어깨가 활짝 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강성익 / Kang, Sung-ik, KIRA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사업단장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